

김상훈의 세상읽기

올해의 사자성어, 현실을 관통하다



주필

#1
연말이 되면 권위 있는 잡지나 사전 편찬기관들이 한 해 동안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올해의 단어, 올해의 사자성어 등을 선정해 발표한다.
영국의 유력 시사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슬롭(Slop)'을 선정했다. 이 단어는 명사로 '음식물 찌꺼기·오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는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저질 콘텐츠가 올 한해 너무 많았다는 의미로 가져왔다고 한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출판부가 출판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영어사전인 옥스퍼드 사전도 매년 이맘때 올해의 단어를 발표하는데 2025년은 '레이지 배이트(Rage bait)'를 뽑았다.
직역하면 '분노 미끼'라는 뜻인데 온라인 조화수를 높이기 위해 분노와 짜증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콘텐츠가 넘쳐 난 한해라는 의미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가장 잘 표현했다는 것이 선정 배경이라고 한다.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도 지난 1995년부터 한 해의 일본 사회상을 반영하는 '올해의 한자'를 발표하고 있다.
엽서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한자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을 1위로 선정하는 데 올해는 '곰 응(熊)'이 선정

됐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곰이 일본 각지에서 출몰하며 피해가 많이 발생해 사회에 충격을 준 점이 선정 이유라는 분석이다.
2위는 '쌀 미'(米)가 차지했는데 미(米)는 쌀값 급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반영된 것으로 일본은 미국을 한자로 '米國'으로 표기한다.
#2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2년 창간한 주간지 '교수신문'이 한해 동안의 주요 이슈와 사회적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올해의 사자성어(四字成語)'를 선정하고 있다. 이 신문의 사자성어는 지난 2001년 '아무리 해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의미하는 '오리무중(五里霧中)'을 선정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교육정책의 잦은 변화, 암울한 국제 정세, 계약제와 연봉제 도입에 따른 신분 불안 등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컸던 시기를 빚낸 표현이었다.
이후 매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 예비심사, 전화·온라인 설문조사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있다.
뿐만 사자성어들이 대부분 한 해의 시대상을 관통하고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촌철살인'적인 표현들이어서 나름 권위를 인정받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5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變動不居)가 선정됐다. 전국 교수 766명 대상 설문에서 33.94%의 지지를 받아 1위로 뽑힌 이 말은 유학의 고전 '주역'에서 유래했으며 '변화는 멈추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시 말해, 12·3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정권 교체 등 1년간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던 격동의 우리 사회를 반영했

다는 얘기다.
지난해의 사자성어는 '권력과 세력을 함부로 부리고 날뛰다'라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였는데 12·3 비상계엄을 상징적으로 지칭했다.
#3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연말 올해의 경영환경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경영환경을 전망하는 사자성어까지 발표해 눈길을 끈다.
최근 중소기업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 응답자 66.5%의 지지로 1위를 차지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적은 인력이나 약한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간다'는 뜻의 '고근분투(孤軍奮鬪)'였다고 한다.
내년도 사자성어로는 30.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자강불식(自強不息)'이 뽑혔다.
이는 '스스로 강하게 하며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뜻인데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기업 역량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26년은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다. 불·붉은색을 뜻하는 병(丙)과 '말'을 의미하는 오(午)가 결합한 것으로 속도, 힘, 진취성을 상징하는 말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불이 만났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치 않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패권전쟁,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계속되는 12·3내란 사태 후유증, 장기화되고 있는 등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고비들이 눈앞에 놓여 있다. 격동의 시대인 2026년, 붉은 말의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기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다시 고르는 메뉴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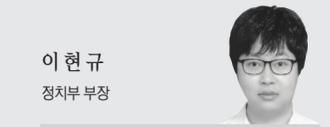
여기서도 비건으로 먹을 수 있다고?
광주 골목 어귀의 작은 분식집에서부터 동네 카페, 시장동 빵집까지 요즘 참 자주 듣는 말이다. 비건은 '특별한 사람들의 식단'에서 융감하게 탈출해, 이제는 도시의 생활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비단 광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식문화를 통한 기후 대응이 공공정책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은 공립학교 절반 이상을 플랜트 급식으로 바꿨고, 뉴욕시는 한자식 기본 옵션을 비건으로 지정했다. 기후위기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거의 같은 말이 되고 있다.
국내 도시의 변화도 빠르다. 서울의 '서울비건페스타', 부산의 '비건그라운드', 제주에서 매년 열리는 '제주 비건 페스티벌', 대구의 '대구비건페스티벌'까지 전국 곳곳에서 "비건은 재미있다"는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 중이다. 도시마다 규모와 분위기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지역 식당과 메이커들의 실현, 그리고 비건을 통해 기후위기를 생활의 언어로 번역하려는 노력이다.

광주는 이 흐름을 결코 늦게 따라간 도시가 아니다. 오히려 2010년대 초반부터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주 1일 채식운동'을 통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기후행동을 제안했다. 한 끼 줄이는 고기가 온실가스, 토양 훼손, 물 사용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연구보다 중요했던 건 시민이 직접 "나도 해볼 수 있겠다"고 느끼는 경험이었다.
2022년부터는 이 실천이 훨씬 더 매력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광주 비건 페스티벌이다. 첫째엔 조용했던 행사는 해마다 규모와 에너지가 커지며, 이제는 광주에서 가장 활기찬 먹거리·환경문화 행사 중 하나가 됐다. 비건 식빵, 채소전, 떡 디저트, 자투리 채소 파icles, 업사이클 생활용품까지 비건이 '참는 음식'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뒤집고, 맛과 재미, 생활실현이 자연스럽게 뒤섞이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는 먹거리 지도를 새로 쓰는 데도 앞서고 있다. 협의회가 여러 단체들과 함께 손 맞대어 제작한 광주 비건지도와 기후미식도시 지도는 시민들의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해, 지역 식당들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유튜브 영상 콘텐츠는 광주의 비건 식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맛있는지를 보여주며 "비건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 무엇부터 먹어볼까?"라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단순한 음식 선택을 넘어, 지역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문화라는 더 큰 흐름이 존재한다. 비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건강, 윤리, 환경 이유가 저마다 다르지만, 광주의 특유의 공동체성은 이 다양한 동기를 서로 연결해 하나의 시민 실천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특히 청년과 가족 단위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비건은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취향이 아닌 도시 전체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 학교·직장·동네 가게에서 만나는 작은 변화들이 서로를 북돋우며, 광주가 '기후에 책임 있는 도시'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비건을 둘러싼 선택을 개인의 취향에서 도시의 미래 방향으로 끌어올리며, 앞으로 광주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도시들이 기후위기의 해법을 식문화에서 찾고, 국내 도시들에서 비건 축제가 일상의 자리로 스며들고 있다면, 광주는 실천과 즐거움이 만나는 지점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다음엔 점심 메뉴를 고르기 전 잠시만 생각해보면 어떨까.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맛있게, 그리고 조금 더 지구를 덜 아프게 만드는 선택을.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광주를 '기후미식도시'로 완성해가는 건지도 모른다.

취재수첩

앞으로가 더 중요한 고향사랑기부제



이현규
정차부 부장

목표액 10억원을 일찌감치 넘겼고, 참여 건수도 9000건을 넘어섰다. 전남 고향사랑기부제가 남긴 올해의 성적표다. 수치만 놓고 보면 분명 의미 있는 기록이다. 그보다 눈길을 끈 것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었다. "왜 기부했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은 대부분 같았다. "고향이니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구조가 복잡한 제도가 아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를 받고,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제도 자체보다 중요한 건 참여의 이유였다.
전남도는 올해 이 지점에 주목했다. 책자나 홍보 문구에 기대기보다 직접 만나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각종 행사장을 찾아가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고,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차분히 전했다. 제도를 알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참여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다.
최근 도청에서 열린 '고향사랑 기부의 달' 행사는 이런 흐름을 보여준 자리였다. 하루 동안 수천 건의 기부가 접수됐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현장의 모습이었다. 휴대전화를 꺼내 기부 방법을 묻고, 답례품 목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람들이다.
누군가는 상품을 보고 참여했고, 누군가는 고향 이름

을 보고 결심했다. 기부가 계산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답례품 구성도 달라졌다. 단순히 농수축산물 중심에서 체험형으로 선택지를 넓혔다.
물건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남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번 경험한 기부자는 다시 참여자로 돌아오고, 이는 자연스럽게 반복 기부와 신규 참여로 이어졌다.
출향 도민과 서포터즈의 역할도 컸다. SNS에 올린 짧은 글, 행사장에서 건넨 간단한 설명이 참여를 이끌었다. 전남도가 혼자 끌고 가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퍼져 나간 셈이다.
이제 중요한 건 다음 단계다. 모인 기부금을 어디에 쓰고, 그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느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 제도가 일회성 기부 행사에 머무르지, 신뢰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앞으로의 운영에 달려 있다. 고향을 향한 마음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그 다음을 지켜볼 차례다.

사설

무안공항 폐쇄 1년...진상 규명만이 해법

무안국제공항의 시간은 지금도 2024년 12월 29일에 멈춰서 있다. 170명이 넘는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한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도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하늘길은 여전히 닫혀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포기하고 1년째 참사 현장에 머물며 천막 농성중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의 진상규명은 조사 과정의 공정성, 정보 공개의 폐쇄성, 사고 피해를 키운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유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항 폐쇄는 장기화됐고 인근 상권은 1년째 '개집 휴업' 상태가 돼 버렸다.
국토교통부가 참사 이후 3개월 단위로 폐쇄 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현재 공고한 폐쇄기간은 내년 1월5일까지다. 하지만 또다시 3개월간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재개항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지역 여행업계는 호남지역 유일의 국제선 공항이 멈춰서면서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국토부 운영 결과 지역 여행업계 피해 규모가 2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올 정도다. 겨울방학과 명절이 다가오는 성수기도 '그림의 떡'으로 대부분이 여행사 간판만 내걸고 연명하고 있다.
여기에 유가족들은 항철위의 조사가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등 단체 등의 공항 구조적 결함보다는 죽은 조종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인재'로 결론 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자신들의 참여하에 엔진 결함이나 기체 노후화 가능성, 콘크리트 둔덕 등에 대한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이 문제를 국무총리실이 총괄해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안공항은 광주 군·민간공항의 통합이전 합의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지만 현재 1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제 유가족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명확한 진상규명이 절실하다. 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후계자 없는 지역 중소기업, 지속 경영 절실

광주·전남에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한다. 대표자가 60세 이상의 고령인데 후계자가 부재한 기업만 4만여개나 되고 경영환경 악화도 경영승계가 어려워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후계자 부재 중소기업 지역별 추정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영자가 60세 이상인데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전국 중소기업은 약 67만5000곳으로 추정된다. 제조업 분야로 한정하면 약 5만6000곳이다.
광주의 경우 20만5262개 중소기업중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는 6만306개(29.4%)에 이른다.
이 중 후계자 부재기업이 1만6946개로 28.1%다. 이를 제조업 분야로만 한정하면 광주에서는 1만2450개 중소기업 중 3888개가 후계자 부재기업인 상황이다.
전남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아 29만4743개 중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경우가 8만6595개로 29.4%이며 이중 후계자 부재기업이 2만1129개로 24.4%이다.
이를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1만9273개 중소기업 중 31%인 6019개가 후계자 부재기업이다.
문제는 자녀나 배우자 등 후계자가 없는 경우 기업을 남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폐업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이는 경영과 직접 연관된 자산에만 세계 혜택이 있고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현행 승계 지원의 제도적 한계와 대기업과 달리 전문경영인 초빙이 어려운 현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승계 실패 시 지역 중소기업 감소와 일자리 위기, 법인세 감소 등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친족승계에 관한 규정을 쉼 없이 개정하고,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기로 했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일본 등 선진국처럼 기업 승계 지원제도를 유연하게 담아 기업의 지속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경 제 부 370-7020 산 업 부 370-701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